



NH선물, 화훼농가 돕기 꽃나눔 행사
NH선물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화훼 수요 감소 및 RK Rp0가격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처한 화훼 농가를 위해 꽃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NH선물 임직원은 고객사인 KBI메탈을 방문해 꽃을 전달하고 꽃 소비 촉진 활동에 대해 안내하며 동참을 요청했다. 이창호 NH선물 대표이사(왼쪽 네번째)와 신동성 KBI메탈 영업·구매 담당 이사(왼쪽 세번째)가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선물



BNK부산은행, 해운조합과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 맞손
BNK부산은행이 한국해운조합(KSA)과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내외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하 어려움 겪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향후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부산은행 손대진 여신영업본부장(오른쪽)이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부산지부장과 포즈를 취했다. /BNK부산은행



코트라, 코로나19 사태 대응 상시 화상상담
KOTRA(코트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조치로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중화권 대상 1차 화상상담회에서 바이어 28개사, 국내기업 37개사와 47건의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회는 그동안 중국지역 전시회 참가가 어려워지면서 신규 바이어 발굴에 애로를 겪던 국내 소비재 기업과 기존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면서 거래 진척이 되지 않던 국내기업에 큰 도움을 줬다. /코트라

마음 전하는 '따뜻한 인생 한끼' 접수

중기사랑나눔재단 내달 6일까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4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2분기 '따뜻한 인생 한끼'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따뜻한 인생 한끼'는 가족, 연인, 친구 등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복지시설 종사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는 '천사 프

로젝트'다. 이번 인생 한끼 프로그램은 JTBC 인기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유현수 셰프의 재능기부로 진행하며 선발자에게는 유현수 셰프가 운영하는 '두레유' 식사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인생 한끼 신청사연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2분기 선발인원은 300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우리에프아이에스 '클린로드90' 캠페인

우리銀 IT운영 장애건수 '0' 기록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전산시스템 무장애 달성을 위한 '클린로드 90(Clean Road 90)'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에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2018년 12월 이동연 사장 취임 이후 IT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 혁신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무결점 IT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90일 주기로 '클린로드 90(Clean Road 90)'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이번 무장애 달성 캠페인을 통해 우리은행 차세대시스템을 안정화시켜 최근 90일 동안 IT운영 체계상 장애건수 제로(0)를 기록했고, 차세대시스템 오픈 이전인 2017년도 대비 지난해 연간 장애 건수도 57% 감소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맹목적인 형사고소 병행, 최선일까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법은 강제성 있는 규범이다. 크게 두 가지 강제수단이 있다. 첫째, 범위반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사적집행), 둘째, 국가가 나서서 범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공적집행)이다. 사적집행이 자연법에 가까운 수단이다. 공적집행은 처벌 근거법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인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 정서는 공적 집행쪽이 더 가까운 듯하다. "법대로 하자"는 사람은 대개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한다. 처벌권을 갖는 국가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 정서가 기업인들에게도 남아있다. 돈을 받아내는 수단인 민사소송만 하는 것보다 처벌 리스크까지 안겨주는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가해자를 직접 추궁하는 반면, 형사에서는 피해자 대신 국가가 그 역할을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내 일'을 하는 것인 반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국가는 '남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일'과 '남의 일'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내 일'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처리가 빠르다. '남의 일'은 '남'에게 일일이 사정을 들은 후 처리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게 빙의(憑依)한 듯 형사 고소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는 수사관은 드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않다.

통계적으로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낮다. 명백한 위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 국가는 처벌권을 행사하는데 신중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로서는 민사에서 승소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게다가 민사소송 자료는 쌍방에게 즉시 공유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패'를 알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낸 자료는 참고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좀처럼 공유되

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깜깜이' 상태일 때도 많다. 국가를 움직여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피해자의 손으로 직접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통상 더 효율적이다.

물론 국가의 도움을 꼭 청해야 할 때도 있다. 가해자가 도망가버려 잡지 못했거나, 가해자에게 돈이 없어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배상 이외에 처벌이 꼭 필요하거나, 피해자에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IT 업계에서도 민사로 대응할지 형사로 대응할지 고민되는 사례가 많다. 경쟁사가 내 서비스를 베꼈거나, 인력이나 영업비밀을 빼갔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도를 넘은 갑(甲)질을 하는 등이다. 민사와 형사의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저 둘 다 하면 좋겠지 싶어서 덩석 형사 고소를 병행했다가 무혐의 처분이라도 내려지면 가해자는 기고만장해지고 민사소송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때로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LG전자·트윈스, 호주 산불복구에 기부금

비영리단체에 4억원 전달

LG전자가 호주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다. LG트윈스 선수단도 함께했다.

LG전자는 22일 호주법인이 호주 비영리단체 와이어스에 기부금 50만 호주달러(약 4억원)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LG트윈스 선수단은 현지 전지훈련 일정 중 기부금 전달식에 동참했다. 팬 사인회를 진행하며 모금활동도 벌였다.

LG전자 호주법인 임직원들도 심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았으며, LG전자는 모금액만큼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다음달 와이어스에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LG전자는 10억마리 이상 야생동물이 죽고 서식지 30% 이상이 없어지는



임상무 호주법인장(왼쪽 첫번째)과 류종일 LG 트윈스 감독(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등 산불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기부금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LG전자 임상무 호주법인장은 "6개월에 걸친 산불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호주와 호주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은행과장 박민우

부음

- ▲이종택씨 별세, 김복덕씨 배우자상, 이재권(CN Worldwide 대표이사)·금호·소연씨 부친상, 정세은씨 시부상, 백기창·김장욱(신세계아이앤씨 대표이사)씨 장인상 = 23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성남영생원 수임리 갑산공원 ☎ 010-2912-7986
- ▲이충한씨 별세, 이주영·이주엽(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씨 부친상 = 23일 오전 11시 15분, 경기 군포 지샘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오전 9시. ☎ 031-389-3774

- ▲김계진씨 별세, 유미자씨 남편상, 김정현·김성원(KBS 공채 24기 개그맨)씨 부친상 = 15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주시 삼성개발공원묘원 엘리시움. ☎ 02-3779-1924
- ▲이범덕씨 별세, 이정우(세계일보 산업부 기자)·하영(수원시립교향악단 단원)·주영(회사원)씨 부친상, 배호주(GEA Korea 팀장)씨 시부상 = 22일 오후 8시, 대구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 301호(조문 사절), 발인 24일 낮 12시 30분 ☎ 053-766-4444
- ▲권오석(전 울산 화성고 교사)씨 별세, 권혁철(부산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권혁범(TV조선 심의실장)·권영란(울산 마곡고 교사)·권혜경(울산 대현고 교사)·권선아씨 부친상, 최장식(변호사)·이수식(울산과학대 교수)·백영춘(현대백화점 부장)씨 장인상, 윤애선(부산대 불

- 문과 교수)·이혜경(마취통증 전문의)씨 시부상 = 23일 오전 7시 43분, 울산 세민에스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 052-920-1244
- ▲전병우씨 별세, 전홍배(MBC 촬영감독)씨 부친상 = 23일 오전,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 02-860-3500
- ▲양옥선씨 별세, 김문섭(전 안성시 주택과장)·의섭(삼성SDS 수석)·문선씨 모친상, 박유한(KBS 보도기획부장)씨 장모상 = 22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24일 ☎ 032-432-3350
- ▲최귀선씨 별세, 이명호(서희건설 관리본부장)씨 모친상 = 22일 오전 2시, 경주전문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경주시 현곡면 선영. ☎ 054-777-4072